

3. 모용선비(慕容鮮卑)의 정복왕조 시연(試演): 2원(二元) 통치 제도의 원형(原型)

부족적 군대 조직과 중국적 관료 체제: 모용 선비의 시제품(試製品)

화평을 미끼로 한족들로부터 온갖 재화를 갈취 해 오던 몽골고원의 흉노족이 내분으로 몰락하고, 요서 초원의 소위 동호(東胡)라는 선비(鮮卑)족이 대체 세력으로 나타나, 중국 대륙에 본격적인 이민족 정복왕조의 등장을 예고하게 된다. 선비족들은, 2세기 중, 단석괴(檀石槐 r.156-81)의 영도 하에 비록 짧은 기간이나마 하나의 제국을 이룩해 몽골 고원의 흉노 세력을 대체했었다. 그 후, 한 동안 약세 이었다가, 한족 왕조들이 쇠퇴 함에 따라, 4세기에 모용선비 연 왕국들을 세울 수 있었다. [A.3.1.]

흉노가 북 중국에 최초로 세운 국가인 전조(前趙 304-29)는 지나 치게 중국식이었기 때문에 초원지대의 토박이 흉노 부족들로부터 호감을 사지 못했고, 조정의 한족 관료들과 흉노 부족장들 사이의 내분을 조장 했다. 두 번째로 등장한 흉노족의 후조(後趙 319-49)는 정 반대로 지나치게 흉포한 흉노식이었기 때문에 한족 농민들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었고, 결국은 한족의 반란으로 멸망했다.¹

당시 서부 만주의 모용 선비족은 오래 전부터 요서 지역으로 내려와 정착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한족 문화를 흡수하면서 살았었다. 기원전 108년 전한 무제의 조선 정벌 이후, 많은 한족들이 요하 유역으로 이주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모용외(慕容廆 r.285-333)는 319년경에 요동을 점령하여 요서-요동 전 지역의 한족 농민과 도시민을 지배하게 되었다.²

17 세의 나이로 족장이 된 모용외는 일찍이 농업과 관료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유교적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었다.³ 그는 5호 16국(304-439) 혼란기의 와중에서도

¹ Eberhard(1965: 122-4), Grousset (1970: 58) 참조. Graff(2002: 61)의 이견을 참조.

² Schreiber (1949-55: 409) 참조.

³ Schreiber (1949-55: 424), Barfield (1989: 109-111) 참조.

晉書 卷一百八 載記第八 慕容廆 太康十年 [289] 教以農桑 法制同于上國...廆...言曰 稼穡者國之本也

자신의 그 작은 나라에 질서를 유지하면서, 본토로부터 피난을 해 오는 수많은 한족 농민, 전직 관료, 학자들을 받아들였다. 부패 한 서진(265-316)의 사마씨 황실을 혐오했으며서도 흉노의 지배에는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한족 전직 관료와 학자들은, 모용씨의 왕국을 한 개의 중화 제국으로 발전시켜 보려는 생각으로, 중국식 조정을 조직하고, 점차 서쪽으로 또 남쪽으로 확장해 나가도록 도왔다.⁴

Han Chinese Collaborators

3세기 이후 중국대륙에 이민족 정복왕조가 나타나자 수 많은 한족(漢族) 인재들이 귀순하여 자발적으로 모사(謀士) 노릇을 했다. 후세 사가들은 유교 도덕관에 입각해 이들의 행위를 변절이라 비난을 했지만, 당시에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모용외(慕容廆 r.285-333)가 요서와 요동 지역을 차지하여 정치와 법의 집행을 잘하고 사대부를 중히 여긴다는 소문이 퍼지자 5호16국 혼란기(304-439)에 접어드는 중원 지역의 한족 인재들이 모용 선비(鮮卑) 왕국으로 피난을 와서 모사(謀士)가 되었다. 서진(西晉: 265-316) 조정에서 증서시랑 영양태수를 지내고 모용외에게 투항한 하동 사람 배의(裴嶷)는 318년에 계책을 올렸다: "진 황실이 쇠퇴하여 이제는(東晉: 317-420) 단지 양자강 주변을 다스릴 뿐이고, 그 위엄과 덕망이 먼 곳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중원의 혼란은 공(公)만이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선비 부족들은 모두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하나 복속 시켜 중원을 도모하는 자원으로 삼아야 합니다."⁵ 모용외는 배의를 장사(長史)로 삼고, 선비족 가운데 약하고 작은 부족부터 복속 시켜 나갔다.

모용외의 뒤를 이은 모용황(鈹 r.333-48)은 337년에 스스로 전연(前燕) 왕이라 칭하면서, 전통적 한족 국가의 관료체제를 완성 시켰다.⁶ 모용외와 그의 아들 모용황은,

⁴ Schreiber (1949-55: 374-5, 405-11, 417-9) 참조.

⁵ 資治通鑑 卷九十 晉紀十二 元帝 大興元年 [318] 三月 帝復遣使授慕容廆龍驤將軍大單于... 廆辭公爵不受...裴嶷言於廆曰 晉室衰微 介居江表 威德不能及遠 中原之亂 非明公不能拯也 今諸部雖各擁兵 然皆頑愚相聚 宜以漸并取 以爲西討之資...以裴嶷爲長史 委以軍國之謀 諸部弱小者 稍稍擊取之

⁶ 魏書 卷九十五 列傳八十三 慕容廆...死 子元眞代立...自稱燕王 置官如魏武輔漢故事...子儁統任...建國 十五年 [352]...置百官

서 요하 초원지대의 우문 선비를 포함한 주변 선비 부족들을 모두 복속시키는 한편, 요동-요서의 정주 한족 농민을 다스리는 중국식 행정 조직과 선비족 유목민을 다스리는 부족적 조직을 분리한 2원적(二元的) 통치제도를 개발 했다.⁷ 즉, 서 만주 초원지대의 선비 부족들은 부족 전통에 따라 유목생활을 하면서 병역을 수행하도록 세습 귀족들이 다스리고, 요하 주변에 거주하는 농민과 도시민들은 한쪽으로부터 선발한 관리를 임용하여 유교적 문민 관료제도로 다스렸다. 부족적이면서도 중앙 집권화된 선비족 군대는 모용외와 황의 형제-아들-조카들이 직접 지휘했다. Barfield(1989: 97-99, 106)에 의하면, 모용선비가 동 아시아에서 최초로 정주 농경지역에 대한 관료적 행정조직과 초원의 유목민을 상대로 하는 부족적 군사조직을 분리한 2원적 통치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를 세운 것이다.

중국 왕실은 왕의 형제들에게 거대한 봉토를 주고, 친왕(親王)의 신분으로 한가롭고 호사스런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반면, 모용씨 왕의 형제나 아들들은 정부 내의 핵심 직책을 담당했고, 동시에 군대의 장군으로 실전에 참여했다. 전연이 성취한 정복들의 거의 대부분은 왕의 아들, 형제, 삼촌들의 탁월한 전략과 지도력 덕분이었다.⁸

후대의 만주족 정복왕조들은 모두 모용 선비족이 개발한 2원 통치제도를 모방하고 개선해서 중국대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복하고 지배했다.⁹ 상황 판단이 빠르고 혁신적인 만주족들이 중국식 관료조직의 효율성과 자신들 고유의 부족적 군사조직의 장점들을 취합하는 2원적 통치체제를 만들어, 수적 열세와 통치기구 부재라는 취약점을 극

모용황 역시 고전에 능통했고, 유교적 교육 방법을 존중했다. Schreiber (1949-55: 424-6, 442, 462) 참조. 晉書 卷一百九 載記第九 慕容皝...尙經學

⁷ Schreiber (1949-55: 401, 422)와 Barfield (1989: 109-111) 참조.

⁸ 모용황은 자신의 부친이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대한 것과 똑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대했다. 그는 황태자를 앞장 세우지 않았고, 유능한 왕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어느 왕자이든 높이 존경했다. 모용황은, 한족 관료들이 맹렬히 반대를 안 했다면, 태자 준(儁)을 제쳐놓고 수(垂)에게 제위를 승계시킬 생각까지 했었다. 당시 모용준은 42세에 제위를 승계했던 것이다. Schreiber (1956: 121-2) 참조.

⁹ 「한편으로는 중국적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유목민적인 2원적 통치제도는 4세기부터 남만주 지역에서 출현 하는데, 후대 몽골족과 만주족 정복왕조를 거치면서 거대한 제국 전체를 장악하고 지키는 통치 체제로 완성되었다.」 Fairbank (1992: 111-2) 인용.

복하고, 중국대륙의 심장부를 정복-지배하게 된 것은 오히려 자연 발생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Motivational Episode

자치통감(資治通鑑 卷97 晉紀19 成帝 咸康8年) 기록을 본다.

342년 10월, 연왕 모용황(慕容皝 r.333-49)은 수도를 극성(棘城/義縣)에서 용성(龍城/朝陽)으로 옮겼다. 이복 형 모용한(翰)이 황에게 말한다: 『우문부족이 강성한지 오래입니다만 지금 공격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고구려가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우문 부족이 망하면 반드시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 것을 알고 빈틈을 타 침입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은 병사를 남겨 두고 가면 우문 부족을 멸할 수 없을 것이고, 적은 병사를 남겨두고 가면 고구려의 침입에 대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문 부족은 스스로 지키기만 하니(宇文自守之虜), 먼저 고구려를 쳐야 합니다. 고구려로 가는 북쪽 길은 평지라 쉽게 공격 통로가 될 위험을 알고 그들의 준비가 있을 것이니, 좁고 험하더라도 남쪽 길로 가서 환도를 빼앗으면 됩니다. 고구려를 취하고 나면 우문국을 취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니 그런 다음에 중원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然後中原可圖).』

342년 11월, 모용황은 군사 1만5천 명을 북쪽 길로 보내고, 자신은 모용한과 모용패(霸)를 선봉으로 4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 길로 나아가 환도를 점령했다. 고국원왕은 혼자 달아났다. 그 때 장수 하나가 모용황에게 말했다: 『고구려 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不可戍守). 지금 왕은 도망했고, 백성들은 흩어져서 산골짜기에 숨었는데(民散潛伏山谷) 우리 대군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모여들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왕의 애비 시신을 파 어머니와 함께 끌고 가면, 고구려 왕이 틀림없이 돌려 줄 것을 간청할 터인데 그 때 너그럽게 돌려주는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을 믿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것입니다.』 모용황은 그 말을 따랐다. 그 후, 모용선비 전연이 370년에 망할 때까지 고구려와의 충돌은 없었다. 344년 봄, 모용황은 모용한, 모용군(軍), 모용각(恪), 모용패, 모여근(慕輿根) 등과 대군을 거느리고 우문 부족을 정복했다. [A.3.2.]

북중국 정복과 중국화의 함정

348년에 모용황이 죽고 둘째 아들 모용준(儁 r.349-60)이 왕위를 계승했다. 352

년, 모용준이 20만의 선비 군대를 동원해 중원을 정복하자, 모용씨 조정의 한족 관료들이 제일 먼저 준에게 제위에 오를 것을 권했다. 황제의 조정 형태가 되면 한족 관리들 자신이 좀더 높은 칭호의 직위로 승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¹⁰

359년 초, 모용준은 자신이 정복한 북 중국의 모든 주와 군에 명을 내려 각 가구에 남자 한 명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장정들을 모두 징집 하도록 명령했다. 단지 20만 명의 선비족 기병을 가지고 북 중국을 정복한 모용준은 무려 150만 명의 한족 보병 대군을 동원 해 남쪽의 한족 동진(317-420)과 서쪽의 저(氐)족 전진(前秦 351-94)을 정복할 발상을 한 것이었다.

당시 징집된 오합지졸의 한족 군대가 얼마나 한심한 상태이었던가는 신소(申紹)의 상소문을 보면 알 수 있다.¹¹ 그 상소문의 일부는 새로 징집된 군대에 관련된 내용이 다: “과거 우리 군사-기병들의 용맹은 진(晉)과 진(秦)나라 사람들 모두가 두려워했었다. 우리 기병들은 언제나 구름같이 몰려들고 질풍같이 적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어째서 요즘 (징집된 한족) 병사들은 정해진 시간에 모이지도 않고, 전투에는 쓸모가 없는 것일까? 지방 관리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제일 먼저 군역과 조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전장과 노역에 끌려 나가는 자나 집에 남아있는 자나 모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고통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모두 도망을 치고, 농사와 양잠을 돌보는 자가 없게 된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우려는 의지다.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병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그들이 전투에 실제 참가하지 않을 때에는 평상시의 생업을 계속할 수 있게 허용되어야 한다.”¹²

¹⁰ 그러자 모용준은 한족 관습을 흉내 내, “우리의 본향은 사막과 목초지이며, 우리는 본래 야만인이었다”고 말하며 한족 신하들의 권유를 물리치는 검양의 미덕을 보여주는 체 하다가, 352년 11월에 “나는 중국 백성들의 권유로 부덕하나마 제위에 오른다”며 자신을 황제라 칭했다. Schreiber (1956: 31-35, 123-4) 인용. 용성(龍城)에서 계(薊)로 천도했던 준은 357년에 다시 업(鄴)으로 천도했다.

¹¹ Schreiber (1956: 54-5, 58, 63-4) 참조.

¹² 晉書 卷一百十一 載記第十 慕容暉 其尚書左丞申紹上疏曰 ... 弓馬之勁 秦晉所憚 雲騎風馳 國之常也 而比赴敵後機 兵不逮 濟者何也 ... 遂致奔亡 ... 退離 蠶農之要 兵豈在多 貴於用命 宜嚴制軍科 務先饒復 習兵教戰 使偏伍有常 從戎之外 足營私業 Schreiber (1956: 82-6) 참조.

360년 정월, 모용준이 병석에 누어있을 당시, 359년 겨울까지 지연되었던 한족 군대의 징집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고 있었다. 모든 주와 군으로부터 징집된 장정들이 수도로 집결하면서, 작당한 도둑떼가 들끓었고, 산적들이 새벽부터 해 질 때까지 인가를 습격을 하여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다.¹³

모용준이 360년 초에 죽자 급조된 한족 군대는 제물에 해산되었고, 11세의 어린애인 위(曄 r.360-70)가 준의 유능한 동생인 각(恪)을 제치고 제위에 올랐다. 모용씨 조정의 중국화 현상은 너무 빨랐고, 결과적으로 전연 왕조 역시 빠르게 해체될 수 밖에 없었다. 섭정 모용각은 367년에 죽었고, 민생에 관심이 없는 어린 황제는 사치에 몰두했다. 신소(申紹)의 상소문을 보면: “우리 제국의 총 호구가 한(漢)나라 때 큰 군 하나 크기에 불과한데 관료 규모는 한 제국 전체 규모와 맞먹고, 군비는 소홀히 하면서도 황궁에는 4천여 명의 후궁(後宮)과 4만여 명의 시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¹⁴

모용씨 조정의 고관-귀족(燕王公貴戚)들의 토지 점유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대부분의 호구가 조세를 감면 받는 탐욕스런 귀족-호족(豪貴) 손아래 들어가 군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로 국가의 재정 수입이 급감했다.¹⁵ 대지주 호족들이 정부의 조세수입 대부분을 가로채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는 사마씨 서진(265-316)의 말기 현상이 재현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용씨가 중국화되자 조정의 한족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남조까지 모두 모용씨를 존경” 했다고 비꼬는 찬사를 듣게 되었다.¹⁶

¹³ Schreiber (1956: 54-5) 참조.

晉書 卷一百十 載記第十 慕容儁 儁於是復圖入寇 兼欲經略 關西 乃令州郡校閱見丁 精覆隱 漏率戶留一丁 餘悉發之欲使步 卒一百五十萬 期明年大集 將進 臨洛陽 爲三方節度 武邑劉 貴 上書極諫 陳百姓凋弊 召兵非法 恐 人不堪命 有土崩之禍... 乃 改爲三五占兵... 是時兵集 鄴城 盜賊互起 每夜攻劫 晨昏 斷行

¹⁴ Schreiber (1956: 83 and 85) 참조.

晉書 卷一百十一 載記第十 慕容暉 其尚書左丞申紹上疏曰...今之見 戶不過漢之一大郡 而 備置百官... 後宮四千有餘 童侍廝養通 兼十倍...戎器弗 營...軍士無襜褕之費

¹⁵ Schreiber (1956: 81, 128), Klein (1980: 22, 39) 참조.

資治通鑑 一百一 晉紀二十三 海西公 太和三年 [368] 燕王公貴戚 多占民爲蔭戶 國之戶口 少於私家 倉庫空竭 用度不足...豪貴恣橫 至使民戶殫盡 委輸無入 吏斷常俸 戰士絕廩... 旣不可聞於隣敵 且非所以爲治

¹⁶ Schreiber (1956: 125) 인용.

365년에 낙양을 점령했던 모용선비 전연은 370년에 전진(前秦) 부견(符堅 r.357-85)에 의해 멸망되었다. 저족(氐族) 전진의 군대가 업(鄴)의 궁궐로 들어가 명적(名籍)을 보니, 당시 전연의 호구는 157군, 1,579현, 2,458,969호, 9,987,935인에 달했었다.¹⁷

전연이 북 중국을 차지한 기간(352-70)이 비록 20년도 안 되었지만, 본격적 정복왕조인 탁발선비 북위(北魏 386-534) 출현의 전조가 되었고, 모용 선비의 업적과 과실은 모두 후세 만주족 정복왕조의 교훈이 되었다.

¹⁷ 晉書 卷一百十三 符堅載記 第十三 太和五年 堅入鄴宮 閱其名籍 凡郡...

Appendix 3.1. 흉노의 쇠퇴와 만주 선비족의 등장: 정복왕조 출현의 전조(前兆)

후한(後漢 25-220)을 세운 광무제(光武帝 r.25-57)는 중국 남부와 월남의 북부를 다시 정복했다. 기원전 209년에 목들의 영토 하에 유목제국이 수립된 지 256년이 지난 47년, 흉노 제국에 내란이 일어나 몽골초원 전체가 산산조각이 났다. 덕분에 요서 초원지대의 오환(烏桓)과 선비(鮮卑)는 제일 먼저 흉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48년에 흉노 제국이 남과 북으로 양분되자, 후한 조정의 장궁(臧宮)은 흉노의 약세를 틈타 고구려, 오환, 및 선비와 연합하여 흉노를 공격하자고 주장했었다.¹⁸ 당시 광무제는 전쟁을 반대하는 자신의 신조를 강하게 피력했다. 49년, 광무제는 푸짐한 선물과 국경 무역을 제공해 선비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었다. 명제(明帝 r.57-75)가 즉위한 다음 해인 58년 이후에 후한 조정이 선비 부족장들에게 정기적으로 갖다 바친 금액은 연간 2억 7000만 냥에 달했는데, 그 규모는 같은 기간 동안 남 흉노에게 바친 금액의 세배에 달하였다.¹⁹

화제(和帝 r.88-105) 즉위 직후인 89-93년 기간 중, 선비-남흉노-후한의 연합군이 오르콘 지역의 북 흉노를 섬멸했다. 살아남은 흉노 중 일부는, 몽골 고원으로부터 계속 서쪽으로 달아나 발카쉬와 아랄 초원지대를 경유해 러시아 남부 초원지대에 까지 이르렀다.²⁰

실크로드로부터 물자를 갈취하는 흉노를 쫓아내기 위해, 후한 조정은 반초(班超 33-102)와 그의 아들 반용(班勇)을 파견하여 94-127년 기간 중 타림분지 전체를 정복했다. 그 결과, 서역으로 가는 길이 열려 불교와 그레코-헬레니즘 양식의 간다라 예술이 전파되었고, 유라시안 대륙의 서쪽 끝과의 교류도 증진되었다.

만주 서부의 선비족들은 흉노족의 내란 덕분에 독립을 되찾고, 잔존 북 흉노족의 대다수와 그들 영토를 흡수 병합하였다. 통구스족에 비해 동호 선비족의 문화가 투르크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비족의 전통은 흉노족과는 달리 선출된 지도자가 제한된 지휘권만을 갖는 약한 부족 연맹체였다. 크고 작은 부족장들은 이따금 개성이 강한 지도자의 영도 하에 단합을 하기도 하지만, 흔히 이들 작은 부족들은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제가끔 중국 왕조의 조공 체제에 개별적으로 가입했다. 통치권이 세습되고 중앙집권화된 흉노족의 체제와는 달리, 선비족은 세습보다는

¹⁸ Jagchid and Symons (1989: 63) 참조.

後漢書 卷十八 列傳第八 ...後匈奴飢疫 自相分爭...建武 二十七年 宮...上書曰...諭告高句麗烏桓鮮卑攻其左 發河西四郡...如此 北虜之滅

¹⁹ Twitchet and Loewe (1986: 443)을 참조. 이 모든 비용은 산동과 강소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충당되었다. Jagchid and Symons (1989: 33) 참조.

²⁰ 이들 서방으로 달아난 흉노는 역사에서 사라졌다가, 그 후손들이 “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나타나, 374년경에 불가강과 돈강을 건너 로마제국을 침공했다. 441년부터 아틸라의 지휘를 받아 유럽 대륙을 유린하다가, 아틸라가 453년에 죽자, 훈족은 러시아 초원지대로 철수했다.

평등한 정치 체제를 선호하였다.

Barfield(1989: 85)에 의하면, 후한 시대인 108년 당시, 선비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중소 부족들은 120개에 달했으나, 흉노의 이름으로 기록된 부족들의 수는 초원지역 전체를 통해 20여 개에 불과했다. 선출된 선비족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 부족이 통합된 군사 작전을 벌려 중국을 침략하는 것이 부족간의 단합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책이었다. 당시 선비족이 채택한 전략은, 흉노와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를 습격해서 약탈을 한 다음 초원지대로 퇴각을 하는 것이다. 보상금 혹은 교역량을 크게 하기 위해 전쟁과 평화를 반복하고, 수적인 열세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중국 본토 점령을 시도하지 않았다.

후한 조정은 중소 선비 부족장들과 기꺼이 직접 거래를 했다. 많은 부족장들에게 그럴듯한 칭호를 수여하고, 각종 물자를 제공 함으로서, 유목민 부족들의 분열을 조장하려 했다. 변경 지역의 한족 관리들은 중소 부족장 들에게 각자 지위에 걸맞은 칭호와 선물은 물론, 교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조공 체제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질투심이 강한 수많은 부족장들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중국 조정의 보조금을 얻을 수 있도록 개별적인 거래를 하는 전략을 구사 해, 선비족 중소 부족장들 스스로가 초원 지대의 단결과 중앙 집권화를 반대 하게끔 유도 했던 것이다.²¹

후한의 쇠망은 184년 황건적의 난으로 시작된다. 188년에 영제(靈帝)가 죽은 후, 한의 통치자들은 지방 호족-군벌의 꼭두각시가 되었다. 요동은 190년부터 238년까지 공손씨(公孫度/康)에 의해 점거되었는데, 이들은 196-220년 기간 중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하였다. 연 왕이라 자칭했던 공손연(公孫淵)은 조조(曹操)의 위(魏) 원정군에 의해 239년에 살해당하였다. 중국의 삼국시대(220-265) 기간 중에는 선비의 작은 부족장들이 조조의 위 조정과 개별적으로 흥정을 하면서 변경의 많은 지역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위 조정은 국경 밖의 유목민에게는 후한 보조금을 주면서 국경무역을 허락 하였고, 국경 안의 부족들에 대해서는 간접지배 정책을 유지 하였다. 단명의 서진(西晉 265-316) 역시 위의 정책을 답습하였다.

한족 왕조들이 흉노-선비 유목민들과 대치한 시기(206 BCE-316 CE)는 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과 대치 하고 있던 시기(272 BCE-395 CE)와 대충 일치 했다.

²¹ Barfield (1989: 246-249) 참조.

漢書 卷九十四下 匈奴傳第六 十四下 莽將嚴尤諫曰 ...中國罷耗...而天下稱武 是爲下

Appendix 3.2. 부여-고구려 예맥(濊貊), 숙신-읍루 통구스, 선비 연(燕)

중부 만주와 한반도의 예맥계 왕국들

예맥-통구스 국가들은 씨족-부족장들의 연맹 형태로 시작했다. 부여와 고구려는 5개 부족의 연합으로 시작했고, 신라와 가야는 6개 부족의 연맹체로 시작했다. 백제에는 8대 씨족이 있었다. 이 느슨한 씨족-부족 연맹체는 시간이 지나면서 왕권이 세습되는 중앙집권적 군주제로 진화하였다. 하지만 부족 연맹체의 전통은 세습적인 관직의 위계 질서를 정했고, 국가 중대사를 심의하는 귀족들의 협의회 제도를 낳았다.

예맥 사람들 역시 북 몽골로이드 특징인 샤머니즘을 믿었다. 신라에서 한때 왕을 차차웅(次次雄, 우두머리 샤먼)이라고 부른 것을 보면, 샤머니즘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²² 불교가 372년경에 고구려에, 384년경에 백제에, 527년경에 신라에 각각 전파되었으나, 그 대중화 과정에서 토속 신앙인 샤머니즘을 크게 흡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명했던 왕망의 신(新 8-23) 왕조는 흉노, 고구려와 함께 부여를 위협적인 존재로 여겼던 것 같다. 부여 왕이 후한 조정에서 사신을 보낸 최초의 기록은 49년이다.²³ 삼국지 위서 동이전은, 3세기 말을 기준으로, 부여에 대해 930자 분량의 기록을 했다. 이는 중국 정사에 나타난 부여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기록이다. 다음은 그 주요 부분의 요약이다.

부여의 서쪽에는 선비가 있고, 동쪽에는 읍루가 있으며, 남쪽에는 고구려가 있고, 북으로는 눈강(嫩江)이 있다. 동이(東夷)들 중에서 부여만이 광활한 평원을 차지하여 곡식을 심고 가축을 길렀다. 노인네들은 그들 선조가 오래 전에 (건국 설화에 의하면 고리에서) 예맥 땅으로 피난을 왔다고 말한다. 부여의 왕실 창고에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옥으로 만든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관직의 명칭은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 가축의 이름들을 사용 한다. 하위직은 몇 백의 호구를 거느리고, 고위직은 몇 천의 호구를 거느린다.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에는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춘다. 마치 의식을 치르듯 술잔을 깨끗이 닦아 상대방에게 권한다. 길을 다닐 때는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노래 소리가 하루 종일 그치지 않는다. 부여 사람들은 흰옷을 숭상하고, 금과 은으로 장식된 모자를 썼으며, 흰 베로 만든 큰소매의 위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가죽신을 신는다. 흉노 모양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갑옷과 무기를 각자의 집에 보관을 하며, 귀족(諸加)들 자신이 전투에 나가는 반면, 하층민은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한다. 사람을 죽여서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백 여명에 달한다. 후한 말기에 선비와 고구려가 강성해지자, 공손씨는 [부여와 동맹을 맺으려고] 자기 문중의 딸을 부여 왕에게 시집 보냈다.²⁴

²² Lee and deBary (1997: 29) 참조.

²³ Lee (1984: 21-22) 참조.

²⁴ 「부여」는 부리아트 방언의 수컷 수달을 뜻하는 「부이르」와 유사하다. 부여 사람들 조상이 고리에서 왔다고 말 하는데, 고리는 부리아트 방언의 순록과 유사하며, 바이칼, 훈룬, 부이르 호수들 사이에서 고리라는 지명을 발견할 수 있다.

송화강과 눈강이 합류하는 지역은 만주 최상의 농경지이며, 요하 지역과는 나지막한 구릉들을 사이에 두고 연결이 되어 소위 “동북평원”을 이루고 있다. 기원전 9세기경의 유물로 측정되는 철제 칼, 단검, 갑옷 등이 흑룡강 유역에서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눈강-송화강-요하를 따라 남북으로 이어지는 물길과 만주의 삼림을 관통하는 고대 교통로를 이용해 바이칼 주변지역과 중부-동부 만주지역 사이에 옛날부터 통교(通交)가 있었다는 흔적을 볼 수 있다.²⁵

동이전은 읍루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을 하고 있다. 읍루는 [말갈-여진의 선조인] 숙신의 후예로, 부여 동북방의 삼림이 우거진 산악 지역에 위치하며, 동쪽 해안에 이른다. 사람들의 생김새는 부여 사람과 흡사하나, 언어는 부여-고구려와 다르다. 곡식과 삼베를 재배하고 소와 말을 기른다. 사람들은 매우 용감하고 힘이 세다. 왕은 없지만, 각 마을마다 우두머리가 있다. 삼림 속에 토굴을 지어 살면서 혹독하게 추운 기후를 견뎌낸다. 식용으로 돼지를 기르며,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겨울 철에는 바람과 추위를 막기 위해 돼지 기름을 몸에 두텁게 바른다. 그들 활의 위력은 쇠뇌(弩)와 같다. 청석(靑石)으로 만든 화살촉에 독을 발라 백발백중 정확하게 활을 쏜다. 읍루 사람들은 한(漢)나라 때부터 부여에 예속되어왔는데, 부여가 세금과 부역을 무겁게 물리자, 220-6년 기간 중 반란을 일으켰다. 부여는 읍루에 여러 번 원정군을 파견했으나,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비록 읍루 사람들이 그 수는 적지만, 아주 험준한 산림 속에 살았기 때문에, 우거진 삼림을 뚫고 들어가 모두 무서워하는 독 화살을 무릅쓰고 그들을 복속시킨다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었다.²⁶

위의 기록들은 고대 예맥계 통구스와 말갈-여진계 통구스가 어떠한 관계를 유지했는가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보여준다.

중부 만주의 예맥족과 서부만주 선비족의 충돌

285년, 17세의 모용외는 부여를 공격해 부여왕을 자살하게 만들었다. 346년에는 외의 아들 모용황이 또 부여를 공격하여, 왕을 비롯해 5만 여명을 포로로 잡아왔다. 선비의 전연(前燕)이 370년에 멸망한 후, 부여는 고구려의 보호를 받았으며, 이어 말갈이 강성해지자 부여 왕실은 그들의 본고장에서 밀려나, 결국 494년에 고구려에 의탁을 하고 역사에서 사라졌다.

동이전은 고구려에 대해서도 간단히 서술을 하고 있다. 고구려는 험준한 계곡에 위치하여 항상 식량이 부족하였다. 사람들의 성질은 흉악하고 급하며 노략질을 즐겼다.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으로, 언어와 관습은 부여와 유사하였으나, 복장이나 기질은 약간 달랐다. 왕은 다섯 개의 부족들 중에서 나왔으며, 왕비는 항상 특정한 부족에서 택해졌다. 지배 씨족들은 결코 들에서 농사일을 하지 않았고 하층민이 그들에게 식량을 공급하였다. 매일 밤 남녀가 떼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

夫餘傳...於東夷地域最平敞...連日飲食歌舞...衣尚白...**兄死妻嫂 與匈奴同俗**...家家自有鎧仗...行道晝夜無老幼皆歌...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飲食之...今夫餘庫有玉 璧珪瓚數代物...蓋本濊貊之地

²⁵ Di Cosmo (2002: 72) 참조.

²⁶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挹婁傳 在夫餘東北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向麗同** 人多勇力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處山林之間 其俗好養豬...其弓長四尺 力如弩
...古之肅慎氏之國也...善射 射人皆入目...自漢以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220-26]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鄰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겼으며, 10월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데 막대한 재물을 소비한다. 그들은 힘이 세고 전투에 능하며, 좋은 활을 만들어 주변의 예맥족들을 모두 정복했다. 말들은 작지만 산악을 오르는데 적합하였다. 왕망이 고구려의 군사를 동원해 흉노를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고구려 병사들은 그저 주변지역을 약탈했을 뿐이었다. 후한 광무제 8년(32년)에 고구려 왕이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하면서 비로서 왕의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2세기(125-67)에 들어와 고구려는 자주 요동을 침범했다. 동이전은 정확한 연대를 기록하지 않고 고구려 군이 서안평(西安平)을 공격하려 가는 길에 대방군의 태수를 죽이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들을 생포 해 왔다고 말한다. 242년에 동천왕(東川王, 227-48)은 서안평을 노략질하였다.²⁷

175년 이후 요동에서 세력을 공고히 한 공손씨는 204년에 낙랑군을 손에 넣었으며, 204-220년 기간 중에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했다.²⁸ 고구려는 공손씨와 싸움을 계속했다. 공손연은 237년에 스스로 연왕(燕王)이라 칭했다. 동이전에 의하면, 조조의 위 나라가 238년에 공손연을 공격했을 때, 고구려 왕은 수 천명의 군대를 보내 위군(魏軍)을 도왔다. 낙랑군과 대방군은 위(魏 220-265)와 서진(西晉 265-316)에 의해 계속 점령되었다.

부여와 고구려는 선비족 모양, 주요 부족들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선출 형식으로 왕을 뽑았었다. (신라에서도 유사한 관행을 볼 수 있었다.) 특정 씨족에 왕위 승계권이 정착된 후에도 종종 형제 계승 현상이 나타났다. 고국천왕(故國川王)이 137년에 죽자 그의 동생은 형수와 결혼을 하고 산상왕(山上王 r.197-227)이 되었다. 형수와의 결혼은 부여와 흉노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부여에서 부자승계로 바뀌는 것은 의려왕(依慮王 ?-285)이 6살의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은 때부터인 것 같다. 고구려는 산상왕 때부터 부자승계 기록이 나타난다. 하지만 왕비는 항상 왕족이 아닌 중요 씨족으로부터 택했다. 왕실의 장로들이나 왕비를 배출한 귀족 씨족이 막강한 정치적 권위를 누렸다.

²⁷ 고구려에서는 전쟁을 전담하는 세습적인 귀족계급이 있었는데, 이들은 들에 나가 농사일을 하지 않고 전투 훈련에만 전념했다. 산악 지역에 위치한 자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이웃을 침략하고 약탈했다. 고구려는 정복한 부족 지배자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면서 그들을 통해 공물을 거두었다. 정복된 옥저 사람들은 옷감과 물고기, 소금, 지방 특산물을 등에 지고 천여 리에 달하는 길을 걸어가 고구려에 바쳤다 한다. Lee (1984: 24) 참조. 서안평은 요의 상경(上京)이 위치했던 곳의 이름이기도 하다.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其人性凶急喜寇鈔...言語諸事 多與夫餘同... 本有五族...本涓奴部爲王...今桂婁部代之...絕奴部世與王婚...坐食 者萬餘口...其民喜歌舞...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其馬皆小 便登山 國人有氣力 習戰鬪 沃沮東濊皆屬焉 ...出好弓 所謂貊弓是也 王莽初發 高句麗兵以伐胡[匈奴]...爲寇盜...王莽...布告天下 更名 高句麗爲下句麗...順桓之間 復犯遼東...又攻西安平 于道上殺帶方令 略得 樂浪太守妻子...景初二年...司馬宣...討公孫淵 宮遣...將數千人助軍 正始三年 宮寇西安平 遼史 地理志一 上京臨潢府 本漢遼東郡西安平之地...又有...黑河...天險足 以爲固 地沃宜耕植 水草便畜牧

²⁸ “106 년, 고구려 왕은 중국 관리들과 시설들을 공격을 해, 한족을 요동군 부근의 서쪽 지역으로 퇴각하게 만들었다. 175 년에 공손도(公孫度)가 독자적 지방정권을 세웠는데, 그 세력과 독립의 정도가 고구려 왕뿐 아니라 부여의 지배자들로부터도 공인을 요구할 정도에 달했다.” Twitchett and Loewe (1986: 450) 인용.

부여, 고구려 사람들은 유목민은 아니었지만 유목민처럼 전투적인 사회조직을 유지했고, 전쟁을 주업으로 하는 귀족계급을 가지고 있었다.²⁹

진서(晉書)에 의하면, 선비족 모용외(慕容廆)의 조상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북방 야만인들 사이에서 살았으며, 조조의 위(220-65) 초기에 와서 모용외의 증조부가 휘하 부족민들을 거느리고 요서로 이주해 정착을 했다. 그 후 언제인가 모용외의 부친은 요서를 떠나 북부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가 283년에 죽자, 동생이 모용 선비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나, 285년에 부여에게 살해되었고, 17세의 모용외가 부족장으로 추대되었다.³⁰ 모용외는 바로 그 해에 부여를 공격해 부여 왕이 자살하도록 만들었다.

3세기 말경, 선비족 모용외가 요하 유역으로 내려와 낙랑군을 서진으로부터 분리시켰다. 고구려는 3세기에 들어와서도 계속 훈강-압록강 계곡을 본거지로 삼고 있었다. 삼국사기는 293-6년 기간 중 고구려와 모용선비 간의 잦은 충돌을 기록한다. Farris(1998: 77)는 선비족이 말 등자의 사용법을 배운 것은 대략 300년경이었는데, "최초로 말을 타고 전투에 임했던 한국 사람은, 바로 선비족과 싸운 고구려 병사들이었다"라고 말한다. 등자의 사용 기술이 한반도에 전해진 것은 선비족과 고구려가 끊임 없이 싸운 덕분일 것 같다.

311년에 흉노가 서진의 수도인 낙양을 약탈하자, 고구려는 313년에 낙랑군을 차지했다. 319년, 고구려는 2개의 선비 부족(宇文, 段)과 연합하여 모용외(r.285-333)를 공격하였으나 모용외와 그의 아들 모용황(慕容皝 r.333-349)이 이끄는 군대에 패하였다. 모용황은 모용외의 둘째 아들이며, 두안(段) 부족장의 딸인 정실 부인의 첫째 아들이다.³¹ 모용외는 다른 아들에게 요동의 방어를 맡겼다. 고구려 군은 320년에도 요동을 공격했으나 패하고 돌아왔다. 모용선비 연과 고구려간의 전쟁은 339-43년 기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다.³²

선비와 예맥 통구스간의 끊임없는 전쟁은, 급기야 요사(遼史)에서 [우문선비의 후손인 거란 선비족의] "요 나라가 고조선 땅에서 유래했으며, [고조선 모양] 기자의 팔조금법(八條禁法) 관습과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는 기록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두 민족 사이에 문화적 동화현상을 야기했던 것 같다.³³

²⁹ Di Cosmo (2002: 43) 참조.

³⁰ Schreiber (1949-55: 393-5) 참조.

³¹ Schreiber (1949-55: 425) 참조.

³² See Schreiber (1949-55: 466-8).

資治通鑑 卷第九十七 晉紀十九 成帝...翰言於皝曰 宇文彊盛日久...今若擊之 百舉百克 然高句麗 去國密 適常有闕觀之志 彼知宇文亡禍將及己 必乘虛深入 掩吾不備 若少留兵則不足 以守多留兵則不足 以行 此心腹之患也 宜先除之...高句麗之地 不可戍守 今其主亡民散潛伏山谷 大軍旣去必復鳩聚 收其餘燼... 請載 其父尸 囚其生母而歸 俟其束身自歸 然後返之 撫以恩信 策之上也 靚從之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중국: 황금시대의 여명 -- 200년부터 750년까지”라는 주제로 (2004. 10. 12.- 2005. 1. 23.) 전시회를 열고, 오늘날 요녕성의 서부에 위치한 조양(朝陽)과 북표(北票) 지역에서 발굴되고 모용선비 고유의 유물로 확인된 상당수의 청동기와 금동제품들을 전시했다. 전시 내용을 책자로 펴낸 Watt(2004: XIX)등은 모용선비의 예술품에 나타난 전형적인 도안 형태들을 얼마 후에 중국대륙의 북위와 한반도의 신라 예술품에서 다시 보게 된다고 말한다. 조양에서 발굴된 한 쌍의 말 안장에 새겨진 (새와 다른 동물들을 품은 6각형들의) 투과형 문양은 모용선비 고유의 기법인데, 후에 북위로 전파된다. Watt(2004: 125)등은 이 문양이 같은 시대에 한반도의 동남쪽에 위치한 신라 왕국 사람들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사실 이런 문양들은 신라에서만 채택된 것이 아니라, 가야에서도, 또 얼마간의 시차를 두고, 일본열도의 야마토 왕국에서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종류의 양식과 문양에 아주 익숙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유물들이 선비족의 유적지에서 나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4세기, 지구 온난화 회복에 동반된 극심한 가뭄은 온갖 종류의 북방 유목민들이 준동하게 만들었다. 4세기는 북 중국에서 5호 16국의 시대(304-439)가 전개되는 시기와 일치하며, 유럽에서는 중앙 아시아 유목민들의 생활 터전인 목초지대를 휩쓴 가뭄이 유목민족들로 하여금 서쪽 유럽 대륙으로 밀려가는 연쇄 반응을 촉발 해, 훈족의 유럽 침공과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374-453)을 전개하는 시기와 일치한다.³⁴

동아시아 역사: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2012 홍원탁(洪元卓) 서울대 명예교수 (<http://www.HongWontack.com>)

³³ 동이전의 예전(濊傳)을 보면, 조선의 기자는 팔조금법을 만들어 백성들을 교화했다 한다. 예전은 연의 지배자가 [기원전 323 년에] 왕이라 칭하자, “기자(箕子)의 40 대 손인” 준(准)도 스스로 조선의 왕이라 칭했다고 말한다.

遼史 卷四十九 志第十八 禮志一 遼本朝鮮故壤 箕子八條之教 流風遺俗 蓋有存者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傳 濊傳 昔箕子既適朝鮮 作八條之教 以教之 無門戶之閉而 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候准僭號稱王

³⁴ “카스피해 수면 높이의 변화와, 간헐적 강과 호수, 그리고 신강과 중앙 아시아의 유기되어 버려진 거주지들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4세기에 들어 한발이 극에 달해 실크로드 통행은 정지 상태에 빠졌었다. 중앙 아시아 유목민들의 생활 터전인 목초지대를 휩쓴 가뭄은 유목민족들로 하여금, 서쪽 유럽대륙으로 밀려가는 연쇄 반응을 촉발 해, 마침내는 로마 제국을 쇠퇴시켰다.” Lamb(1995: 160-1)이 Huntington의 (1907년) 주장을 인용.

로마 사람들에게 흉노 노릇을 하고 있던 게르만족들은, 4세기 초, 라인강으로부터 흑해에 걸쳐 전 로마제국 북방 국경선에 포진하고 있었다. 374년의 훈족 침입은 연쇄 반응을 촉발했다. 미친 듯이 쫓는 훈족과 정신 없이 쫓기는 게르만족들에 의해 유럽 전체가 황폐화 되는 것이다.